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1>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 한다. 계율을 잘 지켜 부처님 삶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먼저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탐욕스런 마음이 없어야 애욕의 불꽃이 꺼지고, 애욕의 불꽃이 꺼져야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시비와 분별이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가귀감> 41장에서는 이 내용을 말한다.

欲脫生死 先斷貪欲 及除愛渴

시비와 분별이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생사(生死)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중생의 삶과 죽음은 시비와 분별로써 이루어져 있다. 시비와 분별은 '나'를 내세우는 탐욕스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이것이 지나쳐 애욕으로 발전하면 지옥이나 아귀 또는 집승의 세상에서 윤회하게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이 단락을 <원각경> 미륵보살장에서 따온 것인데, 그 앞부분을 함께 살펴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여 본다.

"중생들은 탐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수순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 경계가 좋아하는 마음을 등지던 중으로 질투가 생겨나 여러 가지 잘못된 업을 짓게 되고, 이 때문에 지옥이나 아귀의 세상에 태어난다. 착한 사람들이 탐욕을 싫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업(業)에서 벗어나는 도를 좋아하여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즐긴다면, 하늘이나 복된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또 정신적 영역이 한 단계 더 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애욕을 속속들이 알기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즐겨워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애(愛)의 근본을 자라게 한다.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경계를 즐겨 집착하면 윤회하는

시비분별은 '나' 내세우는 탐욕서 비롯 육도윤회 벗어나려면 애욕의 불꽃 꺼야

애욕의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거룩한 도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중생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수순하거나 거슬리는 경계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업을 짓게 된다. 지은 업들이 하나같이 나쁜 쪽으로 치우치면 세 갈래 나쁜 길인 삼악도(三惡道)의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좇게 되면 천상이나 복된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며, 사랑하는 마음조

차 버리고 평등한 경계를 즐긴다면 성인이나 보살의 경계에 살게 된다. 이렇게 중생들이 짓는 업에도 선과 악이 있고, 애(愛)에도 맑고 탁한 것이 있다.

중생들이 짓는 업이 선이나 악, 청(淸)과 탁(濁)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다 중생의 일음(一音)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윤회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어떻게 부처님의 거룩한 도를 증득할 수 있겠는가? 성스런 도를 성취하려면 윤회를 벗어나야 하고, 윤회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과 애욕을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하네"라고 말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愛爲輪迴之本 欲爲受生之緣 佛云 淫心不除 塵不可出 又云 恩愛一縛着

牽人入罪門. 濁者 情愛之至切也. 애정(愛情)은 윤회의 근본이요 정욕(情欲)은 몸을 받게 되는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을 없애지 못한 번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은혜로 애정이 한번 얽히면 이것이 사람을 죄악의 문에 쳐 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애욕의 불꽃'이란 표현은 애정이 너무 간절하여 불붙듯 치열함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몸을 받게 되는 인연은 정욕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고 난 뒤 남게 되는 심식(心識)이 윤회할 때, 자신의 업대로 가야할 천상이나 귀신 지옥같은 곳은 그대로 가서 살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될 때에

는, 그 심식이 업력으로 정욕이 불붙듯 하여 음심으로 부모가 될 상대 가까이에서 맴돌다가 여자의 몸을 아버지를 남자라고 보고, 남자의 몸을 어머니를 여자라고 보고 맺음으로 탈러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몸을 받게 되는 직접 동기는 음욕에서 비롯된다. 물론 성인이나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원력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는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음심(淫心)'에서 '음(淫)'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음심'은 사람의 관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서 애욕에 오염된 마음이다.

또 음란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사람들은 죽어서 그 과보로 지옥이나 아귀 축생과 같은 나쁜 세상에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한다. 하나는 차나 남편이 끌고 어질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는 뜻대로 아들이나 딸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서 계승으로 말한다.

邪婬斷汝清淨種 汚穢本來眞法身 但看鏡 湯爐炭畔 盡是當年破戒人 삿된 음행 부처 씨앗 끊어버리고 본디 참된 법신불을 오염 시키네 지옥 형벌 받는 사람 알고 보니까 지은 죄가 하나같이 파계로구나.

<범망경>에서는 "차라리 이 몸을 활할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과 깊숙하게 파인 골짜기 갈산에 던질지언정, 부처님께서 주신 계율을 끝까지 훼손하지 않을지니 어떤 여인이라도 함께 어울려 깨끗하지 못한 행을 만들어내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

탐심과 애욕을 끊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통달하고 무위법을 깨달아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 애욕의 불꽃을 끄고 모든 번뇌를 여의어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 길일 것이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입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달맞이



환상하게 비추는 달빛은 부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깊은 산속 산사에도 비추고...



밝은 조명이 가득한 도심속에도 비추고... 세상에 골고루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받는 정도는 각자의 몫이니깐요 우리 모두 달맞으러 나가봐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수륙재(水陸齋)

들과 육지에서 해매는 고독한 영혼과 아귀를 달래기 위한 불교의식입니다. 중국의 양무제(梁武帝)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의식문을 만들어 506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재(齋)를 베풀었다지요. 송대에는 동천(東川)이 수륙문(水陸文)을 지어 널리 보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21년 갈양사(襄陽寺)에서 수륙도량을 연 것이 효시입니다. 조선조에선 역불에도 불구하고 수륙재는 맥을 이어왔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진관사(津寬寺)를 국행(國行) 수륙재를 여는 사찰로 지정하였지요.

하지만 수륙재가 국행(國行)으로 치러지는데 대해 유생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종대에 이르러서야 국행시연이 금지됐지요. 이 정도로 조선 초에는 불교문화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륙재의 의식절차는 여러 가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수륙재를 올리는 취지를 밝히지요. 그리고 영신(迎神) 과정으로 명부사자와 오방신, 불법승 삼보를 맞이해 공양합니다. 이어 호법선신(護法善神)들을 맞이해 들이지요.

그 후에 청도할 영혼을 청합니다. 이른바 청신(請神) 과정인데요,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오신(饗神)과정으로 범패(梵唄) 등의 불교예술이 시연됩니다. 태성, 요령, 목탁, 피리 등 여러 악기가 등장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가에서 많이 치러지곤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2장 무위복승분 제 11, 존중정교분 제 12

11장으로 들어선다. 어조가 바뀐다. "토대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건너라"는 충고 끝에, 이 장은 그 취지를 버려처럼 일깨워주는 이 경전의 한량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이 경전을 수지하고 전파하는 공덕

- "수보리아, 갠지스 강의 모래 말이다. 그 모래 수 만류의 갠지스 강들, 거기 있는 모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합치면 광강히 많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주 많겠지요. 모래 알갱이는 갠지스 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더구나 그 속에 있는 모래들을 전부 합치다니 말입니다." "수보리아, 내 진정네게 이르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그 갠지스강들의 모래수만류의 삼천대 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아주 많겠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붓다가 다시 말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중에 있는 사구계 하나라도 수지(受持)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 설행한다면, 그 공덕이 앞의 그 엄청난 칠보 보시보다도 더욱 크나니라."

須菩提, 如恒河中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但諸恒河, 尚多無數,

何況其沙, 須菩提, 我今實言告汝, 若有善男子善女人, 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 得福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佛告須菩提, 若善男子善女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해능이 어찌서 사구계 수지전파 복덕이 더 위대한지 짚어준다. "칠보로 보시하면 삼계의 부귀로 보상받을 것이다. 대승경전은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 지혜를 내게 하고, 더없는 도를 성취하게 하니, 마땅히 알라. (이 경을) 수지하는 복덕이 저 칠보 복덕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어, 애매한 구석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 뿐이다. 조금 도와 매스컴에 인문학의 언필칭 '위기'를 환전(轉換)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만큼 한심한 학문이 아니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문학이나 철학을 하겠다면 필적 된다. 도대체가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거기 들이다간 밥을 굶기 딱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

그런데도 인문학은 중요하냐. 왜? 그것은 다름 아닌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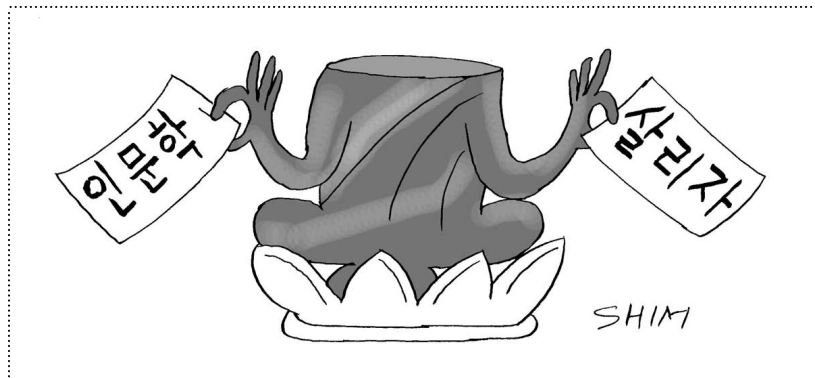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라틴어로 아르스 비타에(ars vitae)라고 불리는 이것만큼 중요한 기술이 없다. 인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고, 자신과 타자와 관계하는 한,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지식이다.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좁은 학문의 중요성에 눈뜬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노년의 학문인지 모른다. 아무래나, 그동안 대학은 이 인문학의 목표에 걸맞은 정신과 커리큘럼에 철저하지 못했다. 객관성의 이름 아래, 과학의 이름 아

고, 7장에서는 이어 "나는 아무 것도 실천하지 않다"는 답을 받은 후, 8장은 이 역설을 알리는 가르침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비유로 파격해 준 바 있다. 그 어투가 지금 11장을 꼭 빼놓았다. 다시 읽어본다. - "수보리아, 네 생각이 어리니.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도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엄청나게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겠느냐. 이 공덕은 공덕의

내놓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 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중간에 칠보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지말라는 삼입구가 끼어 있는 것을 빼면, 이 구절은 11장과 꼭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내가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준 바 있다. 핵심은 <반야심경>이 고도의 압축성으

들의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 까닭이다."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 - "수보리아, 이른바 부처의 진리 혹은 깨달음이란, 실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다." 須菩提, 所謂佛法者, 即非佛法. 8장은 보시다시피, 왜 사구계의 수지독승이 그토록 중요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공덕의 으뜸이고 수승(殊勝)인지를 노파심에서 짚어준다. "사구계 안에 최고의 깨달음이 있다." 여기 또 혹 오해가 있을까 보아 다시 노파심의 경계가 이어진다. "지금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나? 아니, 그런 숨겨진 자기를 자각한다는 뜻이지, 새로운 무엇을 획득한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선 안 돼!"

인문학의 정신에 투철한 지식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러께서 매우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即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 "만약, 누가 있어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지닌다면... 나아가 이 경전의 핵심 몇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복덕은 (자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조건없이

로 의미의 불꽃을 조직화해 놓는데 비해, <금강경>은 변주와 반복으로 이어지는, 음악이나 이야기를 닮았다고 한 바 있다. 그 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장과 11장이 길러지는 곳 많은 지리는 여기까지이다. 11장의 연주는 앞의 8장과 갈라선다. "어디서 어떻게?" 8장의 남은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보자. - "어찌서나, 수보리아, 일체 제불과 그

12장 존중정교분(尊重正教分) 제 12 11장의 뒤는 없다. 12장이 이어진다. 나는 양의 소명태자가 11장과 12장을 갈라놓은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장은 의미 전개상 연속되어 있다. - "다시 수보리아, 이 경전을 실천에 사구계 하나에 이르게 되면, 마땅히 알라, 이 곳은 일체 세간의 천인, 인간, 아수라가 모두 공양을 올릴지니. 부처의 탐도처럼... 더구나 어떤 이가 능히 이 경 전부를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수보리아,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고의 희귀한 진리를 성취한다는 것을... 이저림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 되고, 위대한 제자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天人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即爲有佛, 若尊重弟子. ■ 한국학중앙연구원